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모두에게 사랑이 춤추는 추석

세상에는 명과 암이 존재한다. 언제나 말이다. 우선 낮과 밤이 그렇다. 낮이 밝을수록 밤은 더더욱 어둡다. 한 때 영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일수록 집콕 속으로 추락하는 삶을 견디지 못했다. 누렸던 시절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퇴직 역시 마찬가지다. 화려하게 비상했던 계층일수록 퇴직 후의 삶이 괴롭다. 한꺼번에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쩔 것인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을.

태어남이 낫다면 죽음은 밤이라 할 수 있다. 그 누구도 이 법칙을 피할 수 없다. 조물주는 인간에게 공평한 것 하나만은 분명하게 줬다. 삶과 죽음 말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권력, 재력, 미모, 건강 등을 부에 넘치게 갖게 되는 경우도 있

다. 하지만 그들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생로병사를 피해갈 수는 없다.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수많은 권력자, 재력가들도 길어봐야 몇 십년동인만 누리다가 죽어야 했다. 미모는 더욱 짧다. 아무리 출중한 미모를 가졌다하더라도 길게 잡아봐야 오십대에 접어들면 화려했던 피부모습은 거의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더러는 성형수술 등 의학의 도움을 받으며 온갖 몸부림을 쳐보지만 결국은 허사다.

오히려 성형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부작용 때문에 자연노화에 비해 훨씬 더 추한 모습만 보이게 될 뿐이다. 참으로 공평한 한정된 삶이다. 인간의 욕망, 너무나 무서운 폭력이다.

때문에 그 어떤 광기어린 욕망도 제어할 필요가 있었기에 조물

주는 인간에게 무한한 생을 주지 않았나 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양극간의 싸움은 처절할 정도로 심했을지 모른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길어봐야 백년을 넘기지 못한다. 때문에 짧은 생을 영위하려면 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나눔이다. 나눔의 형태는 여러 가지다. 물질은 나눌 수 있고, 시간을 나눠 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가진 사람이 보다 필요한 자에게 과잉 한 조각이라도 또는 입을 것을 나눠줄 수도 있고, 외로운 사람에게 말벗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극단적으로 부자인 사람도, 생을 부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총량적으로 보면 물질은 풍부하다. 조물주는 결코 인간이 굶어 죽게 해놓지는 않았다.

때문에 어차피 극히 유한자적인 우리들이 서로에게 나눔을 실천하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세가 있다면, 내세의 행복을 위해 복을 쌓아가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며칠 후면 추석이다. 민족의 대이동이 이뤄질 것이다. 오랜만에 부모?형제?자매들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 후회를 풀 것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지 못해 자살까지 할 이웃들도 있을 수 있다. 과거의 예처럼. 독거노인들을 비롯해 혼자서 어렵게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말이다. 이들은 추석이나 설 등 명절 때 더 외로움을 느낀다고 한다.

정부발포에 의하면 우리나라 독거노인 수는 내날이 늘어가고 있다. 이 같은 비율로 간다면 2035년에는 현재보다 무려 3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다. 특히 이들 노인들의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질병도 많을 수밖에 없고 양질의 치료 또한 쉽지 않다.

때문에 이들과 같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추석만큼은 독거노인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보자. 특히 가진 자들은 더더욱.

社說

추석 연휴 사고 유의해야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추석 연휴는 교통사고와 주택화재 위험성이 평소보다 큰 시기이기도 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추석 명절 전후해 총 1만7천97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만72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특히 연휴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는 810건으로 연간 하루 평균 607건보다 1.3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연휴 전날 오후 2시부터 교통사고가 증가하기 시작해 오후 6시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휴에는 가족 단위로 차량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가 171명으로 평소 153명보다 12%가 증가했다. 사상자 발생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는 뒷좌석의 낮은 안전벨트 착용률로 분석된다. 추석 연휴 교통사고 사상자 중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확인되는 9천548명을 분석한 결과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사람 중 40.8%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에는 명절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사용이 늘어난 만큼 화재 발생에도 주의해야 한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추석 연휴에 주택에서 47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원인으로서는 음식물 조리나 화기 방치 등으로 인한 부주의가 272건(57%)으로 가장 많았다.

졸리거나 피곤할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 뒤 운전해야 한다. 주행 중에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고 어린이는 체형에 맞는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음복 등으로 가볍게 술을 마셨더라도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을 조리할 때 불을 켜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하고 환기에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鉅野洞庭

鉅野洞庭

▷ 뜻: 거야(鉅野)는 태산(泰山) 동편에 있는 광야(廣野), 동천(洞淵)은 호남성(湖南省)에 있는 중국(中國) 제1(第一)의 호수(湖水)임.

기고

강명원 고흥소방서 구조구급팀장



추석 전후 야외활동 시 안전사고에 주의

우리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늦은 벌초·성묘 등 야외 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을철에는 독충 및 파충류가 가장 왕성한 번식과 맹독을 지닌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특히 추석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벌초, 성묘객 및 등산객의 증가추세를 예상되어 예초기 사고와 벌 쏘임, 뱀 물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추석 전 1개월 동안 벌 쏘임, 뱀물림, 예초기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전 체사고의 45%가, 특히 화재는 61.4%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초기 사용 시에는 예초기 날의 조인 상태를 확인하고 칼날에 풀맹이, 나무뿌리 등을 철저히 제거 후 예초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목이 긴 장화나 장갑, 보호안경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깨끗한 물로 소독약을 바른 후 수건으로 감싸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벌 쏘임 사고 안전수칙으로는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등과 밝은 계통의 의복을 피하고 벌이 날아다니거나 벌집을 건드려 벌이 주위에 있을 때는 손이나 손수건 등을 휘둘러 벌을 자극하지 않도록 한다.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벌침은 전화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빼도록 하고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얼음찜질을 하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

또한, 독사 등 뱀에 물렸을 경우에는 생체징후를 확인하면서 환

자를 안정시키고 물린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며 물린 부위의 상하부 5~10cm 떨어진 곳을 넓은 끈이나 고무줄, 손수건 등으로 묶어(너무 심하게 묶으면 조직 괴사 우려됨) 독이 퍼지는 것을 지연시켜야 한다.

특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평상시 화재도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듯 추석 명절에도 예외는 아니다. 가스레인지나 아궁이 등에 물이나 음식을 올려놓고 가족이 모두 성묘(省墓)를 가거나 다른 일로 야외 활동 시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므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다리도 두들겨 본다' 생각으로 사고 없는 추석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며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소방출동은 생명의 길임을 잊지 말고 구급차 등 긴급처를 위한 '소방차 길 터 주기'의 실천을 당부 드린다.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실장 이흥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